P73

복막 투석 환자에서 주 일회 Erythropoietin투여의 임상 효과

김영곤, 김종오, 정종훈
조선대의대 내과학교실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서 발생하는 빈혈의 치료는 Erythropoietin의 투여가 가장 좋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투석환자에서 주 3회 피하주사 또는 정맥내 주사로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나 잦은 주사와 동반되는 합병증으로 환자의 불편함이 보고 되는바 최근 주당 일회 고용량의 Erythropoietin사용에 대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2000년 5월부터 2000년 12월 까지 본원에서 복막 투석중인 환자 30명을 대상으로Erythropoietin 6000IU을 주 3회 분할 투여한 14명을 대조군으로 하고 주 일회 6000IU을 투여한 16명의 환자에 대한 임상적 소견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환자들은 모두 6개월이상 Erythropoietin제제를 피하 주사중이었으며 평균 hemoglobin농도는 대조군 10.1g/dl, 주 일회 투여군 9.9g/dl로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8개월후 대조군과 주 일회 투여군의 hemoglobin농도는 각각 9.9g/dl, 10.4 g/dl로 양군간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투여도중 대조군에서는 고혈압으로 Erhtyropoietin의 농도를 일시적으로 감량한 경우가 2예 있었다. 환자의 설문지 검사에서 주 일회 투여군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주사시 통증과 잦은 주사횟수에 따른 불편감의 개선을 보고 하였으며 주일회 고용량의 주사시에도 대조군과의 통증의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Erythropoietin의 주 일회 투여법은 주 3회 투여법에 비해 같은 효과를 나타내면서 주사시 발생하는 불편감과 합병증을 피할수 있는 효과적인 투여법으로 사료된다

P74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Fenofibrate에 의한 횡문근융해증 1예

조성태, 김진철, 오국환, 윤종우, 김근호, 전노원, 김형직, 채동완, 노정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서론 : Fenofibrate는 fibric acid의 유도체로 혈청 콜레스테롤보다 초저비중 지단백, 중성지방을 저하시켜 고중성지방산 혈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Fenofibrate는 99%가 단백질과 결합하여 20시간의 혈중 반감기를 가지며 대부분 소변으로 배설된다. 가장 위중한 부작용은 횡문근융해증이며 정상 신기능을 가진 환자에서는 드물며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용량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신대체 치료중인 말기만성신부전 환자에서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fenofibrate에 의한 횡문근융해증이 보고된바 없어 저자들은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환자는 40세 남자로 내원 2년전부터 만성사구체 신염에 의한 만성신부전증 진단하에 혈액투석 치료중 내원 2주전 고중성지방산 혈증 소견 보여 fenofibrate 250 mg 복용후 내원 3일전부터 우측 어깨부위, 양측하지 부위 통증 및 오심, 구토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내원하였다. 내원시 혈청 생화학검사상 AST 1269 IU/L, ALT 436IU/L, LDH 4,411 IU/L, CK 44,916 IU/L, Myoglobin > 500 ng/ml, CK-MB 106 ng/ml로 증가된 소견을 보였고, 골주사 소견상 Tc-99m MDP의 광범위한 연부조직 섭취 증가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복용 중지후 혈액투석 치료와 보전적 치료후 임상 증상과 검사 소견의 호전을 보였다.